



Prasenjit Duara, *The Crisis of Global Modernity: Asian Traditions and a Sustainable Future* (20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두아라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두아라 교수(이하 직함 생략)는 2007년 시카고 대학에서 싱가포르 국립대로 옮겼다. 왜 그랬을까? 이 책이 답을 주고 있다. 두아라는 근대 국민국가, 민족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 단초를 아시아에서 찾은 것이다.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자연 공공재(natural commons)’, 그리고 그에 얽혀 있는 인간과 생명, 문화와 문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국경을 넘는 공동관심, 공동행동, 그 단초를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지역들을 가로지르고 있는 자연공공재란 무엇인가? 물이요, 강이다. 티베트와 윈난의 설산, 고원, 밀림에서 발원(發源)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아삼(Assam), 방글라데시를 가로질러 인도양과 남중국해로 흘러나가는 브라마푸트라강, 이와라디 강, 누 강, 메콩 강이 그것이다. 두아라는 최근 10여 년간 이루어진 이 강을 둘러싼 댐건설 반대의 초국적 활동에 주목한다. 이러한 초국적 공동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초영토적, 또는 영토해체적(deterritorialization) 비전에 주목한

* 이 글은 두아라 교수의 1월 26일 강연에 대한 논평을 간략히 정리해 달라는 「아시아리뷰」의 요청에 따라 간단한 촌평 형식으로 쓴 것이다(2015. 1. 28).

다. 나아가 시민사회와 NGO들의 이니셔티브, 확장되는 지구적 연계망, 이를 통해 해당 정부들까지 끌어들이는 공동행동의 네트워크적 확장 양상에 주목한다.

두아라는 인도 아삼 출신이다. 그의 출생지는 인도, 미얀마, 원난의 국경선이 만나는 꼭짓점 부근이라 한다. 그리고 보면 그는 그의 생명이 출발한 고향 가까스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계기가 된 것은 2005년 시카고대학 학생자원봉사단 인솔 교수로 미얀마에 가 그곳에서 벌어지는 댐 개발 반대운동 활동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던 일이라 한다. 여기서 글로벌 시민사회, 코즈모폴리탄 정신을 보았고 감동했다 한다.

감동이란 불현듯 오는듯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되어 있는 마음, 절박한 마음 안에 깃든다. 두아라는 16~17세기 유럽 종교전쟁이 낳은 배타적·폭력적 민족국가-민족주의가 전 지구로 확장되어 제국주의-식민주의-포스트식민주의로 이어진 지구 근대사 전체를 고통으로 읽어왔다. 그 고통이 깊었기에 캄캄한 터널의 역사(tunneling, linear history) 끝에 보이는 한 점의 빛에, 또는 빛이라고 그가 느낀 어떤 모습에, 그는 감동을 느끼고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그가 멈춰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의 첫 책은 북중국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책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근대를 비교했으며, 세 번째에서는 만주국 연구를 통해 아시아주의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넓혔다. 모두가 새롭고, 과감하게 영역을 확장했다. 그 확장의 폭은 이번 책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다. 지구의 근대 역사 전체를 보려하며, 아시아의 근대 일반만이 아니라 이를 서구의 근대 전반과 대면시키고 비교한다. 그 스케일을 보면 아시아의 브로델, 아시아의 월러스틴에 접근하려는 야심이 엿보인다.

분류상 역사가의 저서이지만 대단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책이기도 하다. 그의 기존 저작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이지만, 이번 책에서는 이론이 더욱 두드러진다. 사회학, 철학, 정치학의 깊은 지식이 역사학자로서의 동서사의 넓은 연찬(研鑽)과 어우러져 화려하게 펼쳐진다. 300여 쪽의 비교적 짧은 분량에 굉장히 큰 이야기들, 다채로운 논의들을 농축해 넣었다. 여러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데, 특히 '순환적 역사(circulatory histories)'를 강조할 만하다. 일례로 19세기 초 인도의 개혁가 람 모한 로이(1772~1833)의 동양적 근대사상이 유럽의 신지론자들과 미국의 초월론자들(에머슨, 소로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흐름이 다시 동으로

돌아가는 순환 같은 양상이다. 앞서 언급한 동남아시아 댐건설 반대 운동의 배경에 대해 두아라는 바로 그러한 지속가능한 근대(sustainable modernity)의 동서 전통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 배경에 더 깊이 들어가 타자를 배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폭력적이었던 아시아의 다채로웠던 ‘대화적 초월(dialogical transcendence)’의 전통들을 해박하게 재발굴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재정리한다. 유교, 도교, 불교, 힌두의 전통이다. 그리고 그 전통들이 서구 사상과 만나 이룩한 승화의 전통들, 그 가능성들이다. 타고르, 비베케난다, 스리 오로빈도, 간디, 캉요우웨이(康有爲), 량슈밍(梁漱溟), 장타이엔(章太炎), 루쉰(魯迅) 등의 사상, 그리고 인도네시아, 조선, 베트남에서 성립한 통합종교인 삼교회, 천도교, 카오다이교 등의 특징이 분석된다. 2017년 두아라는 이제 10년 만에 다시 미국 듀크대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한다. 순환적 역사, 대화적 초월, 이런 화두를 들고 다시 미국으로 가 이번엔 학술의 순환을 스스로 실행해 보려는 뜻일까?

앞선 책들도 흥미로웠지만, 이번 책이 평자에게는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 평자의 그동안의 작업과 중복되는 바가 가장 넓었기 때문이다. 내가 두아라 교수에게 전한,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였던 대목은 두 가지다. 먼저 근대(the modern), 그리고 근대성에 대한 개념 문제다. 그의 학문 이력은 근대 자체에 대한 비판에서 점차 근대, 근대성 내부의 옥석(玉石) 구분으로 이동하고 있다. 근대성에 내재한 긍정적 가능성을 동서 포괄적으로 (특히 아시아에서) 재발굴하고 재발진시키려 한다. ‘지속가능한 근대성(sustainable modernity)’ 같은 개념이 그 일례다. 특히 초기 근대(early modern era) 아시아에 내장되었던 가능성적 근대에 주목한다. 그러나 막상 근대성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는 외곽을 걸돌고 있다. 기존 근대성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해체, 재구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이 사회학자인 평자와 역사학자인 그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대목에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긍정적 근대성 개념과 부정적 근대성 개념이 정확한 이론적 구분 없이 뒤섞여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또 하나 그가 강조하고 있는 공동재(the commons)의 영역 문제다. 이를 물, 공기와 같은 자연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공재, 사회재로 확대해 볼 점이다. 이를테면 평화와 안전 역시 초국적 (정치적) 공동재다. 경제적 공동재의 영역도 있다. 예컨대 생산력이 높아감에 따라 상품의 한계생산비용이 현저히 낮아질

때(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사회적 경제의 공동재 영역 역시 획기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The commons’는 우리말로 정확히 옮기기 힘든 말이지만, 앞으로 크게 주목해야할 개념이다. 자연 공동재만이 아니라, 정치 공동재, 경제 공동재, 사회 공동재, 문화 공동재로 ‘the commons’의 영역을 확장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니,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표제에서 말하는 바 ‘지구 근대성의 위기’ 또는 ‘지속불가능한 근대성(unsustainable modernity)의 위기’를 극복해갈 진정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5년 2월 5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5일